

# 2017. 1. 17.(화) 언론보도

국민일보

2017년 01월 17일 (화)  
15면 사회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를 찾은 유커들이 체험을 즐기고 있다. 경기도 제공

## ‘태후’ 촬영한 ‘캠프 그리브스’ 민통선 대표 관광지 인기몰이

경기북부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 내 유일한 미군반환 공여지인 파주 ‘캠프 그리브스’의 지난해 이용객이 2015년보다 42%가량 증가해 대표 안보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 캠프 그리브스 이용객이 1만 71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5771명보다 1만1357명, 2015년 1만1993명보다 5135명 늘어난 수치다.

캠프 그리브스는 주한미군이 6·25 직후인 1953년부터 2004년 이라크 파병 전까지 50여년 주둔했던 민통선 내 유일 미군반환 공여

지다. 이후 방치됐던 시설을 경기도가 민간인을 위한 평화안보체험시설로 개조, 2013년부터 부지 내 생활관 1개동을 리모델링해 숙박이 가능한 유스호스텔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으로 운영 중이다.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난해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억소리’, 평화누리길 게스트 하우스 등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프라가 구축돼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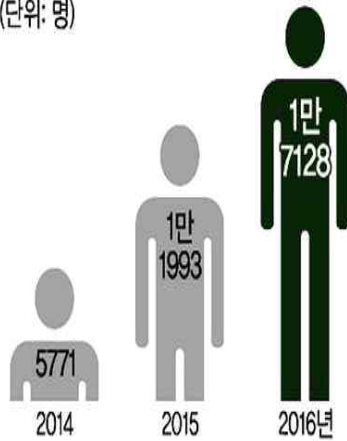
의정부=김연균기자

10.3 X 16.2 cm

# 파주 안보 관광지 '캠프 그리브스' 복적

경기도 "작년 이용객 1만7128명"  
해외서도 방문 "1년새 42% 늘어"

파주 '캠프 그리브스' 이용객 추이  
(단위: 명)



자료: 경기도

파주=송동근기자 sdk@segye.com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내 안보관광지인 '캠프 그리브스'를 찾은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6년 한 해 동안 '캠프 그리브스'를 다녀간 이용객이 1만7128명이라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이용객 수는 2014년도 5771명보다 196%, 2015년 1만1993명보다는 42% 늘어난 규모다.

캠프 그리브스는 주한미군이 6·25전쟁 직후부터 2004년 이라크로 파병되기까지 50여 년간 주둔했던 민통선 내 유일 미군 반환 공여지다.

경기도는 방치됐던 시설을 민간인을 위한 평화안보 체험 시설로 개조해 2013년부터 부지 내 생활관 일부를 숙박이 가능한 유스호텔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주목 받으면서 캠프 그리브스내 주차장과 정비고에서 막사 체험, 군복입기, 군번줄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는 '태양의 후예 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중국 등 해외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박정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DMZ생태관광지원센터와 임진강 독개다리 스카이워크인 '내일의 기적소리'가 지난해 문을 열면서 DMZ 관광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11.4 X 13.0 cm

# 민통선 파주 캠프 그리브스 작년 안보관광객 42% 증가

경기도는 지난해 민통선(민간인 통제구역) 내 안보관광지 파주 '캠프 그리브스(Camp Greaves)'를 찾은 이용객이 전년보다 42%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캠프 그리브스는 미군 반환 공여지로 도는 지난 2013년 이곳에 생활관 1개 동을 개조해 'DMZ 체험관'을 열었다.

지난해 이곳을 다녀간 이용객은 1만7천128명으로 집계돼 2015년 1만1천993명보다 4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5천771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DMZ 체험관은 관광객 숙박뿐 아니라 DMZ 다큐영화제, 청소년 행사, 지방·중앙부처 및 민간단체 워크숍, 인근 부대 장병 면회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캠프 그리브스가 국내 유명 드라마 촬영지로 사용돼 해외에도 알려지면서 중국 관광객 방문이 크게 늘어 이들을 위한 특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4.9 X 14.3 cm



미군기지서 태양의 후예처럼

2013년 12월 문을 연 파주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가 관광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은 중국 관광객들이 드라마 '태양의 후예' 체험 장면.

/연합뉴스

17.5 X 11.3 cm

중부일보

# 캠프 그리브스 체험관 관광객 3배 증가

<2014년 대비>

첫해 5천여명 → 1만7천명 방문  
막사생활·군복입기 등 체험인기

경기도가 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반환 미군기지를 활용해 조성한 '캠프 그리브스 DMZ 체험관'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년간 캠프 그리브스를 다녀간 관광객이 모두 1만7천128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개관 첫해인 2014년의 5천771명보다 무려 3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다.

2015년 방문객은 1만1천993명으로, 개관 첫해부터 매년 5천여 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캠프 그리브스는 남방한계선에서 2km 가량 떨어진 민통선 지역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다. 1953년부터 미군이 주둔하다 2007년 반환됐다.

도는 국방부와 협약을 통해 캠프 그리브스 부지 일부를 양여 받아 기존 시설을 각종 '전시·문화·체험' 공간으로 꾸며 2013년 12월 12일 문을 열었다.

지상 4층, 전체면적 3천325㎡ 규모의 미군 장교숙소 1동을 숙박이 가능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막사 체험, 군복 입기, 군번 줄 만들기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DMZ 다큐영화제, 청소년 행사, 워크숍 등 각종 행사는 물론 인근 부대 장병의 가족 면회장소로도 활용된다. 드라

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관할 군부대인 1사단과 협약을 맺고 안보관광지로 지정, 하루 250명으로 제한한 방문인원을 3천명으로 확대했다. 2~3일 전 사전 통보를 해야 했던 불편도 사라져 당일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DMZ생태관광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임진강 독개다리 스카이워크인 '내일의 기적소리'가 개장하는 등 주변에 DMZ 관광 인프라가 구축됐다"며 "각종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성기자

17.3 X 10.1 cm

# 파주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 관광객 매년 증가

### 지난해 1만7128명 방문 이용객 전년비 42% 증가

지난해 파주 캠프 그리브스 DMZ 체험관을 찾은 관광객이 전년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체험관은 경기도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반환 미군기지를 활용해 조성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캠프 그리브스를 다녀간 관광객은 총 1만7천1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만1천993명에 비해 42%(5천135명) 증가한 수치다.

DMZ 체험관이 처음 문을 연 2014년 5천771명과 비교하면 3배(1만1천357명) 가까이 늘었다.

캠프 그리브스는 남방한계선에서 2km

정도 떨어진 민통선 지역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다. 지난 1953년 7월부터 미군이 주둔하다 2007년 반환됐다.

도는 이후 국방부와 협약을 통해 캠프 그리브스 부지 일부를 양여 받아 기존 시설을 각종 '전시·문화·체험' 공간으로 꾸며 2013년 12월 12일 문을 열었다.

지상 4층, 전체면적 3천325㎡ 규모의 미군 장교숙소 1동을 숙박이 가능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막사 체험, 군복 입기, 군번 줄 만들기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DMZ 다큐영화제, 청소년 행사, 워크숍 등 각종 행사는 물론 인근 부대 장병의 가족 면회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주목 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관련 프로그램 운영 이후 체험관 이용객과 별도로 1만1천101명의

외국인이 이곳을 찾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에는 관할 군부대인 1사단과 협약을 맺고 안보관광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1일 250명으로 제한됐던 방문인원이 3천명으로 확대됐고, 2~3일 전 사전 통보를 해야 했던 불편도 사라져 당일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됐다.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난해에는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 평화누리길 게스트 하우스 등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프라가 구축됐다"며 "앞으로 캠프 그리브스를 비롯한 DMZ의 각종 자원을 연계해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17.8 X 10.8 cm

# 안보관광 명소 떠오른 '캠프 그리브스'

### 민통선 내 유일한 미군 공여지 숙박 가능한 체험시설 탈바꿈 작년 1만7천명 발길 1년새 42%↑

파주 민통선 내 미군반환 공여지인 '캠프 그리브스(Camp Greaves)'의 방문객이 지난 한 해 42% 증가하는 등 DMZ 안보관광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북부 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 내 안보관광 캠프 그리브스를 찾은 이용객이 1만7천1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도 5천771명보다 무려 1만1천357명(196%)이 늘어난 것이며 2015년도 이용객 1만1천993명 보다도 5천135명(42%)이 증가한 것이다.

캠프 그리브스는 주한미군이 6·25전쟁 직후인 1953년 7월부터 2004년 이라크로 파병되기까지 50여 년간 주둔했던 곳으로 민통선 내 유일한 미군반환 공여지다.

도는 방치됐던 시설을 민간인을 위한 평화안보체험시설로 바꿔 지난 2013년부터 부지 내 생활관 1개 동을 리모델링해 숙박이 가능한 유스호스텔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으로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DMZ 관광객의 숙박뿐만 아니라 DMZ 다큐영화제, 청소년 행사, 지방·중앙부처 및 민간단체 워크숍 등 각종 대내외 행사는 물론이고 인근 부대 장병가족의 면회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

지로 주목받아 주차장 및 정비고에서 막사 체험, 군복 입기, 군번 줄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는 태양의 후예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중국 유커 등 해외 관광객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캠프 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이 완료되는 2018년부터는 관광객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DMZ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희망과 예술의 공간이 될 것이다"며 "앞서 도는 지난해에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 평화누리길 게스트 하우스 등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17.0 X 11.1 cm

# ‘캠프 그리브스’ 안보 관광지로 자리매김

〈파주 민통선 내〉

**지난해 1만7128명 다녀가  
1년새 이용객 42%나 늘어  
다큐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  
문화·예술 공간 지속 개발**

지난해 경기북부 민간인통제 구역 내 유일한 안보관광지인 파주 ‘캠프 그리브스’를 찾은 이용객이 전년도보다 4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캠프 그리브스를 다녀간 이용객은 1만7천128명으로, 전년도 이용객 1만1천993명보다 5천135명(42%)이 늘어났다.

캠프 그리브스는 주한미군이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7월부터 2004년 이라크로 파병되기까지 50여 년간 주둔했던 민

통선 내 유일 미군 반환 공여지다. 도는 이후 방치됐던 시설을 민간인을 위한 평화안보체험시설로 개조, 2013년부터 부지내 생활관 1개 동을 리모델링해 숙박이 가능한 유스호스텔 ‘캠프 그리브스 DMZ 체험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DMZ 관광객들의 숙박은 물론 DMZ다큐영화제, 청소년 행사, 지방·중앙부처 및 민간단체 워크숍 등 각종 대내외 행사가 열린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관할 군부대인 1사단과 ‘캠프 그리브스 안보관광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안보관광지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일 250명으로 제한됐던 관광객 출입 인원이 하루 3천 명까지 확대됐다.

도는 현재 캠프 그리브스 부

지 내 시설을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대신 관할 군부대에 관련 시설을 조성·기부하는 ‘기부대양여사업’을 통해 캠프 그리브스 내 시설들을 각종 전시·문화·체험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캠프 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18년부터는 DMZ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희망과 예술의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앞으로 캠프 그리브스를 비롯한 DMZ의 각종 자원을 연계해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그리브스 이용 문의:경기관광공사 ☎031-953-6970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